

‘한 권의 책’으로서 『화씨 451』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hrenheit 451* As ‘One Book’

윤 정 옥 (Cheong-Ok Yoon)*

목 차

1. 머리말	4.1 『화씨 451』의 선정 배경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4.2 『화씨 451』의 주제와 이야기거리
1.2 연구의 방법과 내용	4.3 주제와 프로그램의 연결
2. 선행연구	5. 『화씨 451』의 행사와 프로그램의 분석
3. 『화씨 451』의 선정과 평가	5.1 TBR 2008/09 프로그램의 유형
3.1 『화씨 451』의 연도별 선정 추이	5.2 TBR 2008/09 프로그램의 주제어와 대상
3.2 『화씨 451』의 내용과 주제	6. 맺음말
3.3 『화씨 451』의 평가	
4. 『화씨 451』의 주제와 프로그램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과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The Big Read(TBR)’에서 Ray Bradbury의 『화씨 451』이 보여주는 ‘한 권의 책’으로서의 가치, 이 책을 선정한 지역사회들의 지향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은 2001년-2014년 53개 ‘한 책’ 프로젝트 및 2007년-2015년 136개 TBR 지역사회가 택함으로써,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읽을거리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책을 최초 선정한 ‘One Book, One City L.A.’ 등 주요한 ‘한 책’ 프로젝트들 및 TBR 2008/09의 270개 프로그램과 TBR 2014/15의 240여개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들에서는 독서토론과 영화 상영의 중요성, 검열, 금서, 표현의 자유 등 주제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 구성원의 협력과 프로그램 다양성 간 긴밀한 상관관계 등이 확인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value of *Fahrenheit 451* by Ray Bradbury as the second most favored ‘One Book’, and the goals of the communities which selected this particular book. A total of 53 ‘One Book’ programs from 2001 through 2014 and 136 TBR programs from 2007 through 2015 selected this book as ‘One Book’ to read. In this study, 270 programs in TBR 2008/09, and more than 240 programs in TBR 2014/15 and several ‘One Book’ projects were analyzed. The results confirm the significance of book discussions and movie showing, the focus on such subjects as censorship, banned books, and freedom of expression, etc., an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diversity of programs and cooperation with community members.

키워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지역사회 독서운동, 빅 리드, 『화씨 451』, 레이 브래드베리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Community Reading Campaigns, The Big Read,
Fahrenheit 451, Ray Bradbury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논문접수일자: 2015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8월 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185-208,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3.185]

1. 머리말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난 1998년 처음 시작된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ommunity)’ 독서운동(이하 “한 책” 독서운동)이라 부름)에 참여하는 미국의 지역사회들은 다양한 책을 선정하여 읽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매년 선정한 책을 Library of Congress(이하 LC라 부름) Center for the Books 웹사이트에 자발적으로 등록한다. 이 웹사이트의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내 ‘주별(州別) 프로젝트 리스트’(Library of Congress 2013a)와 선정 책들의 ‘작가별 리스트’(Library of Congress 2013b)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13년 6월 당시까지 읽을거리로 선정된 책은 1,037종이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은 Harper Lee의 *To Kill a Mockingbird*(이하 『앵무새 죽이기』라 부름)이다(윤정옥 2014b). 2015년 1월 현재 전체 책 수의 변동은 살펴보지 않았으나, 86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앵무새 죽이기』는 여전히 가장 많이 선정된 책이고, 그 다음은 Ray Bradbury의 *Fahrenheit 451* (이하 『화씨 451』이라 부름)이다.

『화씨 451』은 지금까지 모두 53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2002년 4월 출범한 California 주 Los Angeles의 ‘One Book, One City L.A.’와 Florida 주 Palm Beach의 ‘Read Together Palm Beach County’에서 처음 읽을거리로 선정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책도 『앵무새 죽이기』와 마찬가지로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하 NEA라 부름)의 전국적 문학독서 이니셔티브인 The Big Read(이하 TBR이라 부름)에서 2006년 시범사업부터 선정도서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07년부터 2014/15년 사이 138개 지역사회가 선정된 『앵무새 죽이기』와 더불어 136개 지역사회가 이 책을 선정하여, 역시 TBR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책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가 함께 읽고 이야기할 ‘한 권의 책(One Book)’으로서 『화씨 451』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앵무새 죽이기』가 갖는 ‘한 권의 책’으로서 가치, 이 책을 선정한 지역사회들의 지향점 등을 이해하고자 했던 이전 연구(윤정옥 2014b)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연구는 『화씨 451』의 서평이 아니며, 작품의 문학적, 사회적, 오락적, 혹은 역사적 가치 등을 논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수많은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 특정한 책에 주목하여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의 실마리로서 삼고자 한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5년 1월 현재 LC Center for the Books 웹사이트에 등록된 ‘한 책’ 독서운동 프로젝트들의 주별 리스트 및 선정 책들의 작가별 리스트에서 『화씨 451』을 선정한 ‘한 책’ 프로젝트들과 관련된 문헌, 신문기사 및 웹 자료를 조사하였다. 특히 2002년 처음으로 이 책을 선정한 4개의 ‘한 책’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한 책’ 독서운동의 목표, 책 선정 기준과 과정, 이 책과 관련하여 진행한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TBR 2008/09에 참가하여 『화씨 451』을 읽었던 42개 지역사회의 270개 행사와 프로그램 및 TBR 2014/15 참여 지역사회의 240여 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유형, 주제 및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2. 선행연구

‘한 권의 책’ 독서운동과 TBR에 관련하여 일련의 NEA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NEA는 1982년부터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SPPA)’를 시행하며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의 예술 참가, 문학작품 독서, 전자매체를 통한 예술 소비, 예술 창작과 공연, 예술 학습 등 영역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하고 있다. 2002년 SPPA 및 이전 서베이 결과를 기반으로 한 *Reading At Risk*(NEA 2004)에서는 미국 성인의 지속적 독서율 하락(46.6%)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였고, *To Read or Not To Read*(NEA 2007)에서는 1982년부터 2002년 사이 ‘재미로 독서’를 하는 청소년의 급격한 감소 추세 및 젊은 청년층의 전반적 독서율 감소의 심각성을 보고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NEA는 2006년부터 ‘한 권의 책’ 독서운동의 모형에 바탕을 둔 TBR이라는 전국적 지역사회 문학 독서운동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8년 서베이에 근거한 *Reading on the Rise*(NEA 2009)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문학 독서율 증가 추세(50.2%, 113백만 명)라는 긍정적 현상을 보고한 바 있다.

새로운 2012년 SPPA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한 *How A Nation Engages with Art*(NEA

2013)에 따르면, 지난 12달 동안 미국 성인의 자발적 독서율은 54.6%(128백만 명)로서 2008년(54.3%)보다 아주 약간이지만 증가하였다(p.27). 자발적 독서란 어떤 것이든 “업무나 학교에서 요구되지 않은 책”을 읽는 것(NEA 2013, 10)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들의 문학 독서 참여율, 즉 소설, 단편소설, 시집, 혹은 희곡을 한 편이라도 읽은 비율은 다시 하락하고 있다(47.0%, 110.5백만 명, p.24). 특히 소설과 단편소설 독서는 2008년 47.0%에서 2012년 45.2%로, 시집을 읽는 사람은 8.3%에서 6.7%로 감소하였다(NEA 2013, 24). 이러한 문학 독서의 감소는 백인, 남녀 모두, 중년 성인 및 다양한 교육적 배경의 성인들 가운데 나타났다(NEA 2013, 25). 이러한 감소세의 원인은 아직 분석되지 않았다.

TBR에는 2006년 시범사업 이후 2009년 당시까지 거의 500여 개 지역사회에서 21,000여 파트너 기관이 참여하고 수백만 명의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고(NEA 2009, 10), TBR 2014/15까지는 모두 1,100여 개 지역사회가 참여하였다. 이처럼 많은 지역사회에서 TBR이 시행되었고, *Reading on the Rise*(NEA 2009)에서는 TBR을 포함한 NEA의 다양한 문학 독서 촉진 활동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통계 수치 상 독서율의 하락 결과가 나타난 것은 향후 분석이 기대된다.

초기 TBR의 성과에 대해서는 NEA, IMLS와 Arts Midwest가 Rockman et al.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 있다(Sloan, Honeyfold and Bass 2008). 이 연구는 2006년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6개월 단위 프로젝트 TBR 3개 주기에 참여한 315개

지역사회를 조사하여, 이 기간 동안 6,000여 차례 독서토론과 10,000여 개 행사가 진행되었고, 225,000여 명이 독서토론에 참여했음을 보고하였다. 이 TBR 지역사회들이 가장 많이 선정한 책은 순서대로 『앵무새 죽이기』(70개 지역사회), 『화씨 451』(58개), *Their Eyes Were Watching God*(37개)으로 나타났다(Sloan, Honeyfold and Bass 2008, 3-4). 이들은 무작위로 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TBR 선정도서 목록'에서 고르게 되는데, 이 목록에는 1주기에 8권이 포함되었고, 2주기에 12권, 3주기에 16권으로 늘어났다. 참여 지역사회들의 책 선정 이유는 다양하였으나, 대부분 광범한 독자층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책을 원했으며 번역본과 대형 활자본의 이용 가능성, 중고등학교 추천도서 목록 수록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Sloan, Honeyfold and Bass 2008, 18). 이 연구는 비교적 초기이지만 TBR의 참여 지역사회, 선정 책, 행사와 프로그램, 지역 주민의 참여도와 반응 등을 폭넓게 조사하며 TBR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 책' 독서운동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포괄적인 대규모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한 책' 독서운동을 다룬 문헌들은 개별 '한 책' 프로젝트의 사례나 경험을 기술하거나 누적된 성과 등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한편 Fuller와 Sedo는 '한 책' 독서운동에만 주목한 것은 아니지만, *Beyond the Book*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Canada Reads', 'Seattle Reads' 등을 관찰하였고 독자들이 책과 독서에서 무엇을 얻는지 분석하였다. 이들은 'One Book, One Community'와 같은 대중독서운동을 'mass reading events'라고 명명하였고, 도시와 지역이 하나의 "슈퍼

사이즈(supersized)" 도서 그룹 역할을 함을 강조하였다(2014). Dempsey는 '한 책'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도서관의 존재를 눈에 띄게 함으로써 도서관이라는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를 확장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Dempsey 2009), TBR을 통해서 Hurston, Hammett, Hemingway, Tolstoy 같은 작가들이 새롭게 문화적 자극을 주고, 지역사회가 이들의 책을 읽고 협력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변화의 동인"이 됨을 강조하였다(Dempsey 2008).

그동안 국내보다 미국의 '한 책' 독서운동에 관심을 가져온 윤정옥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선정된 책들의 계량적 특성을 분석하였고(2014a), 가장 많은 '한 책' 프로젝트들에서 선정된 『앵무새 죽이기』의 선정 이유, 책의 주제와 프로그램의 관계 등을 살펴봄, 책의 이야기 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으로 변주되는 사례를 기술하였다(2014b).

우윤희와 김종성(2014)은 우리나라 '한 책' 독서운동을 폭넓게 살펴본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2003년 최초의 '한 책' 프로젝트 출범 이래 여러 곳에서 지속적 지역사회 독서운동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와 데이터가 누적되었음을 주목하였다. 이들은 2014년까지 31개 지역 시·구의 도서관과 도서관사업 통합 홈페이지를 일일이 검토하여, 선정된 473권 357종의 책들 중 대체로 최신 도서와 어린이 도서, 지역성을 살린 도서 선정 경향이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국내 '한 책' 독서운동의 지속과 확장에 따라 그 현실적 목표가 다양해지는 한편, 어린이 독서와 신간 도서 등에 집중하는 "미성숙한 독서문화"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조찬식(2013)은 국내 사례로 '2012 독서의

해’ 프로그램으로 시행된 서울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성과를 검토한 바 있다. 다양한 형태의 독서토론과 독서토론 아카데미, 작가와의 만남 등 전형적 ‘한 책’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북스타트 출범 등 지역사회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대중독서진흥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내 연구들은 사실상 고등학생 혹은 청소년 이상 성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이른바 ‘원조’, ‘한 책’ 독서운동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는 “한국적 ‘한 책’ 독서운동의 토착화” 같은 현상을 암시하기도 한다. ‘한 책’ 독서운동을 통해 성인 독서의 저변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도서관의 지원세력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미국과는 달리 어린이들과 더불어 한 때의 즐거운 책읽기 행사에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3. 『화씨 451』의 선정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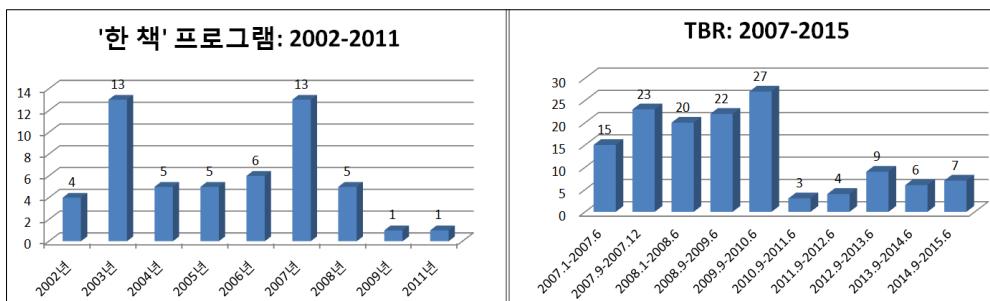
3.1 『화씨 451』의 연도별 선정 추이

『화씨 451』은 미국 Illinois 주 출신 Ray Brad-

bury가 1953년 처음 발표한 소설로서 그동안 진행된 ‘한 책’ 프로젝트 및 TBR에서 『앵무새 죽이기』 다음으로 많이 선정되었다. 그동안 ‘한 책’ 프로젝트에서 2014년 11월 현재까지 모두 86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앵무새 죽이기』가 부동의 1위였으며, 그 다음은 모두 53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화씨 451』이다. 또한 TBR에서는 138개 지역사회가 『앵무새 죽이기』를, 136개 지역사회가 『화씨 451』을 각각 선정하여, 역시 가장 많이 선정된 책들로 나타났다(윤정옥 2014).

〈그림 1〉은 2014년 말까지 ‘한 책’ 프로젝트 및 TBR에서 『화씨 451』 선정의 연도별 선정 추이를 보여준다. 왼쪽 도표는 ‘한 책’ 프로그램 선정 현황으로 2002년 처음 4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이래 LC 웹사이트에 선정 프로그램이 마지막으로 등록된 2011년까지 현황을 보여준다. 오른쪽 도표는 TBR이 정식 출범한 2007년 1월부터 최근 지역사회 선정을 마친 2014-15년까지 선정 추이를 보여준다.

『화씨 451』은 2002년 처음 시작된 4개의 프로젝트에서 ‘한 책’으로 선정되었고,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One Book, One City L.A.’, ‘Read Together Palm Beach County’, Indiana



〈그림 1〉 연도별 『화씨 451』 선정: (왼쪽) ‘한 책’ 프로그램: (오른쪽) TBR

주 Lafayette의 'One Great Read, One Greater Lafayette', 그리고 Michigan 주 East Lansing의 'One Book, One Community'는 모두 2002년 처음 출범하면서 이 책을 읽을거리로 선정하였다.

이들 중 'One Book, One City L.A.'와 'Read Together Palm Beach County'는 2002년 상반기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되어, 어디가 먼저 이 책을 선정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Read Together Palm Beach County'는 3월부터 4월 사이 진행되었고, 'One Book, One City L.A.'도 4월에 시작되었으므로, 거의 동시에 이 책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행사는 각각 3월과 4월에 시행되었어도 그 이전에 각기 책의 선정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점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거의 동시에 서로 다른 지역사회가 이 책을 선정하였고, 그 이후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매우 꾸준히 이 책이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처음 'One Book, One Chicago'의 『앵무새 죽이기』와 같이 전국적으로 홍보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많이 주목되는 계기를 얻었다. 실제로 'One Book, One City L.A.'가 진행되는 4월 한 달 동안 『화씨 451』은 1953년 간행 이래 처음으로 *Los Angeles Times* 반양장본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최상위에 오르기도 하며 (BusinessWire 2004),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얻었다.

〈그림 1〉의 왼쪽 도표에 따르면 2002년 4개의 '한 책' 프로그램, 2003년에는 13개 프로그램,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5개 프로그램, 2006년에는 6개 프로그램, 2007년에는 13개 프로그램, 2008년 5개 프로그램이 『화씨 451』을

선정하였다. 2009년과 2011년에는 각각 1개 프로그램이 선정하여, 그 기간 동안 모두 53개 프로그램이 이 책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1〉의 오른쪽 도표에 따르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역사회를 공모했던 TBR 공식 사업 첫 해인 2007년 1월-6월에는 15개, 2007년 9월-12월에는 23개 지역사회가 『화씨 451』을 선정하였고, 2008년 1월-6월에는 20개, 2008년 9월-2009년 6월에는 22개 지역사회가 이 책을 선정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38개와 42개 지역사회가 이 책을 읽은 것이다. 이후 1년 단위로 공모를 시작한 TBR 2009/10에는 27개, 2010/11에 3개, 2011/12에 4개, 2012/13에 9개, 2013/14에 6개, 그리고 2014/15에 7개 지역사회가 각각 이 책을 선정하였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TBR 공식 사업기간 동안 모두 136개 지역사회가 『화씨 451』을 선정한 것은 138개가 선정한 『앵무새 죽이기』(윤정옥 2014b)와 거의 비슷한 규모이다.

한편 TBR 2010/11부터 『화씨 451』의 선정은 현저히 감소하여, 이후 이 책을 선정하는 지역사회는 연간 10개를 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감소 이유는 이때부터 TBR 선정도서가 30여종으로 증가하였고, 선택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화씨 451』을 선정한 '한 책' 프로젝트들과 TBR 참여의 직접적 관계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화씨 451』을 선정했다고 LC 사이트에 등록한 53개 '한 책' 프로젝트들 중에 TBR 참여를 명시한 지역사회는 단 4곳이다. Indiana 주 Bloomington의 Bloomington Area Arts Council이 주관하는 'One Book, One Bloomington and Beyond'는 2002년 2월 최초 출범 이래 매년 진

행되었고, 2007년에는 TBR에 선정되어 『화씨 451』을 읽었다. Kansas 주 Topeka는 Friends of the Topeka and Shawnee County Public Library 주관으로 2003년부터 ‘On the Same Page in Shawnee County’를 진행하였고, 2007년 TBR에 참여하며 이 책을 읽었다. New Hampshire 주는 New Hampshire Humanities Council이 주관하여 ‘What Is New Hampshire Reading?’이란 주 전역 ‘한 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었지만, 읽은 책들을 등록하지 않았고, 2007년 TBR로 이 책을 읽었다고 등록하였다. 또한 2002년 출범한 Illinois 주 Peoria의 Peoria Public Library and Common Place 주관 ‘Peoria Reads’는 2007년에는 TBR로 『앵무새 죽이기』, 2008년에도 TBR로 『화씨 451』을 읽었다. 이처럼 TBR로 읽으면서 LC에 ‘한 책’을 등록한 4개 지역사회의 중복을 제외하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 책’ 프로젝트로, 혹은 TBR로 미국 내 크고 작은 185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화씨 451』을 ‘한 권의 책’으로 선택한 것이다.

3.2 『화씨 451』의 내용과 주제

『화씨 451』이 어떤 책인지, TBR 독자 안내서를 참조하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방관 Guy Montag는 불을 끄는 대신 불을 내는, 전문적인 책 소각자이다. 오랫동안 순종적으로 임무를 잘 수행했던 그는 어느 날 자기 서재를 떠나느니 죽는 게 낫다는 Mrs. Hudson

의 책들을 불태우라고 소집된다. Montag는 문득 책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녀의 책 몇 권을 몰래 가져온다. 난생 처음 깊이 책을 읽기 시작한 그는 자신이 지키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져간다... 그는 그의 각성과 변화를 감지하고 조여 오는 상관 Beatty에게 저항하고, 외곽으로 달아났다. 독자들의 저항세력을 만난다. 이들은 각자 서로 다른 책 한 권의 전체 내용을 암기, 즉 보존할 책임을 갖고 있다. 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기다릴 때, 수평선에 불꽃이 나타난다: 세상이 전면 텔레비전 스크린을 지켜보며 투약으로 혼수상태에 빠지는 동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큰 불이 난다.”(NEA 2015d)

최초로 출간된 이 책의 반양장본(Bradbury 1953) 표지에는 “화씨 451--책의 종이에 불이 붙고, 타는 온도...(Fahrenheit 451--the temperature at which book paper catches fire, and burns...)”라고 서술되어 있다.¹⁾ 이 책의 제목만으로 중국의 ‘분서갱유’ 혹은 독일 나치의 분서와 같은 개념을 바로 떠올리긴 어렵다 해도, 책의 내용에서는 쉽게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고, 도서관들은 이러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OCLC의 종합목록 WorldCat에 포함된 1953년판 양장본과 반양장본의 서지레코드 53건 중 서지레코드 458586671(New York: Simon and Schuster, c1951)은 8개의 주제표목을 갖고 있다. Book burning, Censorship, Totalitarianism, State-sponsored terrorism 및 이들 각각에 부표목 Fiction을 붙인 것들이다. 말하자면 이 책

1) 화씨 451도는 섭씨 232.8도에 해당한다.

의 주제는 '분서, 검열, 전체주의, 국가가 지원한 테러리즘'이다. LC 목록의 서지레코드 LCCN 53011280(New York: Ballantine Books 1953)도 동일한 4개의 주제표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 책은 LC가 선정한 "미국을 만든 책" 100권의 목록에서 "책이 불법화되고 불태워지는 미래의 미국을 그린 혼란스러운 판타지" (Library of Congress 2014)라고 소개한 것처럼 판타지 혹은 Science Fiction으로 분류된다. 이 책은 WorldCat의 장르별 가장 인기 있는 책 'Science Fiction' 부문에서 『프랑켄슈타인』, 『해저 2만리』, 『1984』, 『멋진 신세계』, 『우주전쟁』에 이어 6위에 올랐고(OCLC, WorldCat 2015), 앞서 언급한 LC 목록의 서지레코드에서 'Political fiction', 'Satire', 'Science Fiction' 장르로 표현되었다.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 이러한 검열이나 정보통제, 전체주의 등 문제가 공공연히 실존하는 상황에서 이 책이 '공상과학소설'이라 불리는 'Science Fiction'으로 분류되어 온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하지만 통상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소방관이 책을 불태우려 다닌다는 전제 자체가 상식을 반한다는 점만으로도 그러한 분류는 일견 타당하게 보일 수 있다.

『화씨 451』에 대한 이러한 주제표목 부여 혹은 장르 구분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서관을 비롯한 일반 독자들이 갖는 인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앞서 인용한 LC의 "미국을 만든 책" 해설에서 저자 자신이 검열이나 분서보다 지식이나 독서에 대한 텔레비전의 영향을 언급했다고 지적한 데서 엿볼 수 있다. LC는 "이 소설의 해석들은 검열 수단

으로서 분서의 역사적 역할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Bradbury는 이 소설이 텔레비전이 어떻게 지식을 유사사실(factoids)로 축소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파괴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하였다(Library of Congress 2014).

최근 미국의 영화배우 Tim Robbins가 낭독한 오디오책 『화씨 451』의 서평에서 *New York Times*의 서평가 David Itzkoff도 그 점을 분명히 하였다. Itzkoff는 이 책이 1953년 발행 이래, "쉽게 디스토피아 소설의 정전(正典) 자리를 차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책에 대한 접근성이 - 신경과민인 교육위원회나 까다로운 온라인 소매상에 의해 - 아직도 정식으로 부인되는 시대에, 이 책의 적합성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은 사실상 책이 불법이 되고 불태워지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이며, 지식의 가치, 정보의 중요성과 책을 - 물리적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소중한 물체인 - 책으로서 읽는 유일한 바꿀 수 없는 경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Itzkoff는 작가가 평생 이 소설이 "정부 검열이나 전체주의적 지배의 위협에 관한 책이 아니라고 계속 설명해야 했다는 점에 놀란 듯이 보였다"는 점도 명백히 언급했다. 그는 Bradbury 스스로 자신의 전기 작가에게 이 책은 "'Big Brother'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Little Sister'에 대한 것"이라고 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평자는 작가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또래 압력 이든, 서서히 잠식하는 기술이나 무관심이든, 우리로 하여금 지적 탐구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작은 방해와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강조하였다(Itzkoff 2015).

3.3 『화씨 451』의 평가

『화씨 451』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독자들의 독서토론과 서평 사이트인 GoodReads.com(2015)에는 이 책이 20세기 간행된 가장 훌륭한 책들 중 11위에 올라 있다. 2015년 1월 13일 현재 이 사이트의 “Best Books of the 20th Century” 리스트에는 6,035권의 책이 올라와 있고, 지금까지 모두 40,022명의 독자가 투표를 하였다. 이 리스트는 독자들에게 190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 간행된 책들 중 가장 훌륭한 책을 투표하게 한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전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2014년 5월 21일 당시에는 37,199명이 투표하였고 모두 5,531권의 책이 올라와 있었으며, 그 가운데 『앵무새 죽이기』가 1위였다. 당시 『앵무새 죽이기』는 5개의 별점에 평균 4.23개 별점으로 평가됐고, 총점은 1,007,189점,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투표한 사람은 모두 10,183명이었다(윤정옥 2014b). 2015년 1월 현재 『앵무새 죽이기』는 총점 1,078,005점, 10,904명이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지명함으로써 여전히 1위이다. 『화씨 451』은 5개 별점에서 평균 3.95점을 받았으며, 총점은 311,819점이고, 3,261명이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투표하여 11위에 올라와 있다(GoodReads.com 2015). 한편 LibraryThing.com에서 이 책은 30,969명의 독자가 있고, 557건의 리뷰가 있으며, 5개의 별점 중 4.03개의 평점을 받았다(LibraryThing 2015). 이처럼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점을 주는 책들 중 상위권에 들어 있다.

『화씨 451』은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의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이 매년 공개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전국의 학교나 도서관에서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책들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00년-2009년 사이 가장 많이 도전된 책들 가운데 『앵무새 죽이기』가 21위, ‘한 책’ 프로그램들에서 역대 3번째로 많이 선정된 『연을 좇는 아이』가 50위에 올랐던 한편, 『화씨 451』은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ALA 2014c). 또한 1990년-1999년 사이 가장 많이 도전된 책들 가운데 『앵무새 죽이기』는 40위를 차지하였으나, 『화씨 451』은 포함되지 않았다(ALA 2014d). 또한 “금지 혹은 도전 받은 고전” 100권의 목록에서도 『앵무새 죽이기』는 4위에 올랐던 것에 비하여, 『화씨 451』은 포함되지 않았다(ALA 2014a). 이 책은 적어도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환경에서 그렇게 큰 논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4. 『화씨 451』의 주제와 프로그램

4.1 『화씨 451』의 선정 배경

『화씨 451』을 왜 읽는가,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책을 최초로 선정한 몇몇 ‘한 책’ 프로젝트들의 선정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ad Together Palm Beach County’는 2002년 출범 시 어떤 기준으로 『화씨 451』을 선정하였는지는 명백히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책을 동시에 읽음으로써 “읽을 수는 있지만 자주 읽지 않는 어른들을 다시 독서습관으로 끌어들이기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핵심 주제

를 토론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지역사회 대화와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형적인 ‘한 책’ 독서 운동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와 기대로 2002년 3월부터 4월 사이 『화씨 451』을 읽으면서, 최초 행사에서 미국 공영방송 National Public Radio의 저명한 진행자인 Renee Montagne가 지역의 극장에서 2시간의 대중토론을 진행하였고, 작가와 전화 인터뷰도 진행하였다(Read Together Palm Beach County 2014). 이 ‘한 책’ 프로젝트의 구체적 책 선정기준은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2년마다 진행되는 현재, 2014년 읽을 책을 선정하면서 사전에 1월 13일부터 2월 7일 사이 5권의 책 후보를 공개한 후 전문가 패널이 각 책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몇 차례 미팅을 진행한 후 주민들로 하여금 투표하게 한 것(Literacy Coalition of Palm Beach County 2014)을 볼 때, 『화씨 451』도 이러한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2년 가을 처음 시작된 East Lansing의 ‘One Book, One Community’도 최초의 책으로 『화씨 451』을 선정하였다. City of East Lansing과 Michigan State University가 후원하는 이 ‘한 책’ 프로젝트는 매년 가을 4주간 동안 다양한 캠퍼스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주제, 이슈와 스토리를 다루며, 책을 읽고 행사를 진행한다. ‘One Book, One Community’는 주요 대학과 주변 지역사회 주민들이 한데 모여서 책을 읽는 최초의 지역사회 독서 프로젝트들 중 하나이다. 이 ‘한 책’ 프로젝트의 목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도전적인 이슈와 주제를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공동 경험을 통해 학생들과 지역사회 구

성원들 간 지적 및 사회적 조화를 구축”하는 것으로 책 선정의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였다:

- 시와 캠퍼스를 방문할 수 있는 주요한 저자의 저작
- 대학생과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적합한 독서 수준
- 그룹 토론과 분석에 알맞은 적절한 주제와 이슈
- 청년과 일반 지역사회에 적합하면서도 매력적인 주제
- 지역사회-대학 프로그램과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제(One Book, One Community 2010)

‘One Book, One Community’에서 『화씨 451』을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최초의 읽을거리로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전형적 ‘한 권의 책’으로서의 적합성을 가진다고 평가된 것이고, 이러한 평가가 이후 다른 지역사회들에서도 계속 공유된 것이기 때문이다.

2003년 2월 Michigan 주 Kalamazoo Public Library 주관 ‘Reading Together’에서도 최초의 ‘한 책’으로 『화씨 451』을 선정하였다. ‘Reading Together’는 최초에 Seattle이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온 지역사회가 동시에 같은 책을 읽으면 어떨까?”라고 질문하였다. 이 ‘한 책’ 프로젝트는 지역의 Kalamazoo Community Foundation의 BetterTogether 이니셔티브 및 50여개 지역사회 파트너 기관,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고, “한 권의 책이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읽고 토론하기 위해 모든 연령, 모든 계층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의 도서선정 위원회가 제시한 책의 선정기준은 책이 보

편적인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청소년과 어른 모두에게 매력이 있으며, 대형활자본, 스페인어본, 오디오북, 비디오 등 많은 포맷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Kalamazoo Public Library 2003b). 이들은 『화씨 451』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고, 이 책의 구체적 주제를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에서 반영하였다. 3월 한 달 동안 모두 29차례의 독서토론을 열었고, 3월 12일 열린 패널 토론회는 ‘Conflagrations of the Mind: Authoritarianism, Censorship, and Ideas’라는 제목으로 전체주의, 검열과 아이디어를 주제로 다루었다. 그 후 1966년 François Truffaut가 이 책을 영화화한 작품을 상영하였고, 지역 극단이 낭독극 공연을 했다. 또한 Bradbury의 친구이자 공식 전기 작가인 Dr. Garyn Roberts를 초대하여 ‘Imagination, Biography, and Censorship’이라는 강연을 열었다. 검열과 개인의 자유라는 주제를 논하는 ‘Are “Firemen” at Our Door?’라는 제목의 패널 토론회도 열었다(Kalamazoo Public Library 2003c). 이들이 독서토론 진행자들을 위한 지침에서 강조한 점들이 바로 이 책에서 생각해보고자 한 주제라 할 수 있다. 토론 질문은 작가나 책 속의 인물들이 취한 입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으로서 “복종(Conformity) vs. 개성(individuality): 언론 자유와 그것을 잃은 것의 결과; 역사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기계가 인간의 도우미인가 vs. 장애 혹은 적인가” 등을 다루었다(Kalamazoo Public Library 2003a).

『화씨 451』이 처음 선정된 것은 한 권의 책을 읽자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자고 시작된 ‘한 책’ 독서운동의 열기 혹은 불길이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무려 129개의 새로운 ‘한

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던 2002년이다(윤정옥 2013). 그 이후 책을 불태우는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이 점점 더 주목받게 된 배경은 어쩌면 이 책의 ‘50주년 기념판(The 50th Anniversary Edition)’ (Bardubry 1953) 뒤표지에 인용된 *The New York Times*의 평가에서 엿볼 수 있다: “그 암시만으로도 끔찍한... 우리 것과 놀랍도록 많이 닮은, 이 미쳐버린 세상에 대한 Mr. Bradbury의 이야기는 매혹적이다.”

4.2 『화씨 451』의 주제와 이야기거리

『화씨 451』은 제목부터 도발적이며 강력한 주제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앞서 언급한 Library Thing.com에서 이 책에 대해 독자들이 부여한 30개의 태그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censorship, dystopia, science fiction, classic의 4개였다. 그밖에도 fiction과 더불어 banned books라는 태그가 눈에 띄었다(LibraryThing 2015). Science fiction, classic, fiction 같이 장르 관련 태그를 제외하면, 일반 독자들은 검열, 디스토피아, 금서를 주요한 주제로 인식하였다. OCLC WorldCat이나 LC 목록의 서지레코드에서 분서, 전체주의 등 주제표목을 부여했고, 일반 독자들도 금서, 검열 등으로 인식한 『화씨 451』의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비록 저자의 본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독자들이 금서, 그리고 금서를 만들어내는 디스토피아적 사회와 전체주의 사상을 다룬 책으로 인식하는 한, ‘한 책’ 프로젝트에서 토론 및 프로그램도 그러한 주제에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다.

『화씨 451』의 주제가 강렬한 한편, 내용이 무겁고 배경이 제한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1966년

이 책을 영화로 만든 Truffaut는 Bradbury가 그린 미래가 “따분하고 거의 무색인 세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5b). 책의 배경이 그런 만큼, 『앵무새 죽이기』에 어른과 아이, 흑인과 백인, 상류층과 하류층, 범죄자와 변호사 등과 같이 성별, 연령, 계층, 직업, 인종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건과 관계들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준다. 따라서 『앵무새 죽이기』를 읽은 지역사회들이 다양한 주제 혹은 이야기거리를 갖고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윤정옥 2014b)과 비교할 때, 『화씨 451』은 주제의 다양성 면에서는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4.3 주제와 프로그램의 연결

『화씨 451』의 주제와 이야기거리가 다소 무겁게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한 책’ 독서운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행사와 프로그램에는 연결하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 책’ 독서운동에서 선호되는 영화 상영에 적합한 자원이 많다. TBR 공식 웹사이트에 소개된 『화씨 451』(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he Big Read 2015b) 자료에 따르면, 이 책은 1966년 François Truffaut가 최초로 영화로 만들었다. 이 영화를 포함하여 Bradbury 작품을 영화화한 것이 *A Sound of Thunder*(2005), *The Wonderful Ice Cream Suit*(1998) 등 모두 9편에 이른다. 통상 ‘한 책’ 프로그램들에서는 읽을거리로 선정된 작품을 영화로 만든 것을 상영할 뿐만 아니라 작가의 다른 작품을 영

화화한 것, 또는 유사한 주제를 다루었거나 작가가 어떤 형태로든 관련된 영화 등을 상영한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8). 그런 면에서 『화씨 451』은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씨 451』이 그리고 있는 디스토피아를 주제로 한 George Orwell의 『1984』 같은 문학작품이나 Robert De Nero가 나온 *Brazil* 같은 영화 등도 연결될 수 있다. 또한 Bradbury가 *The Halloween Tree*(1993) 등 자신의 작품 세 편의 극본을 썼을 뿐만 아니라 1956년 John Houston 감독이 영화화한 Herman Melville의 *Moby Dick* 극본도 썼기 때문에 이들 또한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Bradbury는 1947년 *Dark Carnival*이라는 작품을 발표한 이래 2012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꾸준히 활동하여, 500여 편의 단편소설, 소설, 희곡과 시 등이 그의 작품목록에 들어있다(Bradbury 1953). 그는 2000년 National Book Foundation Medal for Distinguished Contribution to American Letters, 2004년 National Medal of Arts, 2007년 Pulitzer Prize Special Citation 등을 수상할 정도로 인정받은 작가였다(Harper Collis Publisher 2014). 따라서 『화씨 451』을 읽으면서 함께 읽을 수 있는 작품이 많이 있고, TBR에서는 *The Martian Chronicles*(1970), *The Illustrated Man*(1951), *The Golden Apples of the Sun*(1953) 등 다수의 작품을 함께 읽을거리로 소개하고 있다(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he Big Read 2015b).

‘한 책’ 독서운동에서 책을 선정할 때 작가의 방문은 프로그램에서 중요시되었다. ‘If All Seattle Reads the Same Book’은 아예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현재 생존 작가라는 것을 선정기준에 포함시켰고, ‘One Book, One Chicago’도 작가의 방문 가능성을 선정기준에 포함시켰다(윤정옥 2013). 2002년 ‘One Book, One City L.A.’는 그러한 조건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Bradbury가 생존하였고, 이 책의 저술 당시부터 출간 Los Angeles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작가가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였다(BusinesWire 2003). 같은 해 ‘Read Together Palm Beach County’에는 작가가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패널 토론회에서 전화 인터뷰로 청중들의 질의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다(Literacy Coalition of Palm Beach County 2014). 물론 Bradbury 사후에는 그의 전기 작가나 연구자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나, 여러 면에서 『화씨 451』은 읽을거리로서 관심을 끄는 동시에 전형적인 ‘한 책’ 독서운동의 행사와 프로그램 구성에 적합한 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5. 『화씨 451』의 행사와 프로그램의 분석

여기에서는 『화씨 451』을 읽을거리로 선정한 ‘한 책’ 프로젝트들에서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앵무새 죽이기』의 경우(윤정옥 2014b)와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은 대다수 ‘한 책’ 프로젝트들의 이전 행사와 프로그램에 관하여 도서관 등 공식 자료를 통해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매년 선정도서를 읽는 지역사회의 행사와 프로그램 리스트를 공개하는 TBR

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현재 공개되어 있는 TBR 2014/15 참여 6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240여 개를 검토하고, 본 연구자가 당시 자료를 수집해 놓았던 2008/09 참여 42개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270개는 프로그램 유형, 주제 및 대상자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다.

5.1 TBR 2008/09 프로그램의 유형

TBR 2008/09에 참여하며 『화씨 451』을 읽은 지역사회는 모두 42개로 이들이 등록한 프로그램은 270개에 이른다. <표 1>은 이 프로그램들의 제목과 내용을 검토하여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전체 270개 프로그램 중 유형별로는 독서토론이 모두 97개(35.9%)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한 책’ 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한 TBR의 목표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다. 독서토론은 New Jersey 주 Salem에서 진행된 ‘Book Club in a Bag’ 독서토론, South Dakota 주 Mitchell에서 열린 ‘Fireside Chat and Book Discussion’, Wisconsin 주 Elkhart Lake의 ‘Group Book Discussion’, California 주 Stockton의 ‘Science Fiction Book Discussion’처럼 다양한 이름과 주제로 열렸다. 대부분 일반 어른 대상이지만 노인이나 청소년처럼 특별한 연령대를 위한 독서토론들도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진행된 프로그램은 영화상영(38개 프로그램, 14.1%)이었다. 대부분 앞서 언급한 Truffaut의 영화 『화씨 451』을 한 차례 혹은 여러 차례 상영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Stockton의 ‘Ray Bradbury Film Festival’이나 Indiana 주 New Castle의 ‘The Big Read

〈표 1〉 TBR 2008/09 『화씨 451』 프로그램의 유형 (N=270)

프로그램 유형	빈도	비율	프로그램 유형	빈도	비율
독서토론	97	35.9%	책 배포	6	2.2%
영화	38	14.1%	콘테스트	6	2.2%
강연	21	7.8%	활동	6	2.2%
토론	15	5.6%	개막	5	1.9%
스토리타임	13	4.8%	게임	4	1.5%
전시회	11	4.1%	폐막	3	1.1%
낭독회	11	4.1%	서베이	2	0.7%
극화공연	7	2.6%	방문	2	0.7%
패널 토론	7	2.6%	기타	16	5.9%

Film Series'처럼 Bradbury의 작품이 영화화 되었거나 그가 극본을 쓴 영화들을 여러 편 상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또한 Salem의 'Movie Showing'처럼 『화씨 451』 및 비슷한 주제의 다른 영화들을 상영하는 프로그램, North Carolina 주 Winston-Salem의 "Engine Four" Film Screening & Discussion'처럼 지역의 소방서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필름을 상영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Illinois 주 Rochester에서는 'Is the Book Always Better than the Movie?'라는 제목으로 영화 상영 후 『화씨 451』작품과 영화를 비교하는 토론도 진행되었다.

영화 상영의 중요성은 최근 TBR 2014/15에 참여하는 Alabama 주 Troy의 Troy University 주관 행사에서도 볼 수 있다. 이 TBR 행사에서는 2014년 9월부터 11월 사이 '필름 페스티벌'을 진행하였는데, 개막식에서 『화씨 451』 영화를 상영한 이후 매주 화요일에 Truman Capote 영화, 그리고 *The Book Thief*, *Dead Poets Society*, *Educating Rita* 등 모두 8차례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고 그 후에 토론회를 갖는다. 여기에서는 개막 행사 이후 모두 17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여성 토론그룹인 'P.E.O

Book Discussion', 교사협회인 'Delta Kappa Gamma Discussion Group' 토론 등 독서토론이 3회였던 것에 비하여, 영화 상영이 8회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영화만 상영한 것이 아니라 매번 그 후에 토론도 진행하였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TBR 2008/09 프로그램들 중에는 Virginia 주 Lynchburg의 소방관의 'Firefighter Fun! 강연'과 같은 강연 21개 프로그램(7.8%), Texas 주 Mesquite의 'Speak Out and Speak Up! 토론'과 같은 각종 토론 15개 프로그램(5.6%)을 비롯하여 어린이를 위한 스토리타임 13개 프로그램(4.8%), 각종 전시회와 낭독회가 각각 11개 프로그램(각 4.1%)씩 진행되었다. 『화씨 451』의 극화공연과 패널 토론이 각각 7개 프로그램(각 2.6%)씩 진행되었고, 책 배포 프로그램, 스펠링 비(철자법 대회), 에세이 콘테스트 등 각종 콘테스트, 헬러윈 행사 등을 포함한 활동이 각각 6개 프로그램(2.2%)씩 진행되었다. 그밖에도 모든 연령대 주민들이 작품 속 'Parlor Wall'에 들어가는 가상현실 게임을 수행하는 'Wii Experience 게임'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독서토론이 아닌 일반 토론이나 패널 토론은 『화씨 451』 책 자체를 다루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2008년 5월 12일 California 주 Stockton에서 진행된 ‘John Morearty on Intellectual Freedom and the Average Person’과 같은 토론 프로그램은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등 책 주제의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다.

한편 TBR 2008/09에 참여하는 여러 지역사회가 ALA Office for Intellectual Freedom (OIF)의 연례 ‘금서주간(Banned Books Week)’을 전후하여 행사를 진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OIF는 매년 9월 마지막 주간에 도서관 자료에 대한 도전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언론 자유를 기리며 읽을 자유를 찬양하는 ‘금서주간’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미국 전역의 많은 지역사회에서 도서관과 사서 뿐만 아니라 서적상, 출판사, 언론인, 교사 및 모든 유형의 독자들을 포함하는 전체 “책 공동체(book community)”가 함께 참여하며 사상을 추구하고 표현할 자유를 지지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OIF는 매년 ‘금서주간’에 그 해 동안 가장 많이 도전받은 책들의 목록을 공개함으로써 책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제한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검열의 위협에 대해 전국이 주목할 수 있게 한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5). 이런 면에서 지역사회들이 『화씨 451』을 읽으면서 ‘금서주간’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하겠다. TBR 20014/15에 참여하는 Alabama 주 Troy와 Wisconsin 주 Kenosha에서도 ‘금서주간’ 행사를 같이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한 책’ 프로젝트나 TBR의 창의성은 독서토론 외 프로그램들에서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독서토론은 독서와 토론이라는 기본요소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지만, 행사와 프로그램은 훨씬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R 2014/15 참여 지역사회의 프로그램들 중 흥미로운 것으로는 앞서 언급한 Kenosha의 University of Wisconsin-Parkside Library와 Troy의 Troy University가 각각 주관한 행사에서 볼 수 있다. Kenosha에서는 2014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Third Coast Bicycles “Big Read Big Ride” 451 km Challenge’가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든 자전거로 451 km를 탄 사람들이 등록하면, 상 추첨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자전거와 『화씨 451』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451 km를 달림으로써 451이라는 상징적 숫자의 의미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Troy에서도 2014년 10월 18일 ‘Big Run for Big Read’로 5 km 달리기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지역의 ‘Anti-Bullying Coalition’과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를 구호로 사용하면서, 타운 광장에서 어린이 대상 스토리 타임도 갖고 책도 나누어 주었다.

Kenosha에서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있었다. 시내 두 곳의 하우스 맥주 양조장 겸 레스토랑에서 『화씨 451』에서 영감을 받은 하우스 맥주를 만들어 2014년 9월 14일 동시에 시음 파티를 열었다. 그중 ‘Public Craft Brewing Co. Tapping Party’는 새로 만든 ‘No Front Porches-Imperial Smoked Red Ale’을 마시며 “어디에나 있는 텔레비전의 방해 없이!” 대화를 나누고 파티를 하자고 하였다. ‘Rustic Road

Brewing Co. “Fahrenheit 451” Beer Tapping Party’도 할라피노 고추를 첨가하여 “열기”를 느낄 수 있는 ‘Fahrenheit 451’이라는 이름의 맥주를 만들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4번째로 맥주가 팔릴 때마다 Kenosha Literacy Council에 \$0.51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한 책’ 프로젝트인 TBR이건 행사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이러한 독서운동이 도서관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행사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표현될 수 있다. 책 제목을 딴 맥주 제조나 시음 파티와 같은 행사들은 다소 뜬금없이 보일 수도 있으나, 『화씨 451』 및 책속에 등장하는 ‘현관(front porch)’, ‘연기(smoke)’, ‘열기(heat)’, 텔레비전, 451 등의 단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상징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책에 대한 인식 및 행사 참여를 자극할 수 있다. 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제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참여한다면 이처럼 창의적이며 흥미로운 독서운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5.2 TBR 2008/09 프로그램의 주제어와 대상

〈표 2〉는 TBR 2008/09의 270개 프로그램을 주제어로 분류한 것이다. 사실 한 권의 책을 읽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책과 작가,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서토론을 하면서도 『화씨 451』이라는 책 자체만을 주제로 삼을 수도 있고, 아예 금서, 검열,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보다 넓은 주제를 이야기거리로 삼을 수 있다. 물론 전자의 경우라 해도 당연히 이러한 주제들도 아울러 이야기하겠지만, 특별히 책 자체를 내세우는가, 주제를 내세우는가에 따라 언급되는 내용의 비중은 다소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각 프로그램이 가장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 주제어를 하나씩 뽑아서 분류해 보았다.

270개 프로그램들의 주제로서 가장 강조된

〈표 2〉 TBR 2008/09 『화씨 451』 프로그램의 주제어 (N=270)

주제	빈도	비율	주제	빈도	비율
화씨 451	149	55.2%	검열	7	2.6%
소방	25	9.3%	불	2	0.7%
책	24	8.9%	표현의 자유	2	0.7%
Bradbury	23	8.5%	가상(Virtual)	2	0.7%
금서	14	5.2%	기타	11	4.1%
Science Fiction	11	4.1%	합계	270	100%

〈표 3〉 TBR 2008/09 『화씨 451』 프로그램의 대상 (N=270)

대상	일반	청소년	어린이	노인	합계
빈도	230	23	14	3	270
비율	85.2%	8.5%	5.2%	1.1%	100%

것은 당연히 『화씨 451』이다. 모두 149개 프로그램(55.2%)에서 이 책 자체를 주제로 삼았다. 『화씨 451』을 주제로 삼은 대부분 프로그램들은 독서토론과 영화 상영이다. 하지만 Texas 주 Mesquite에서 10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열린 ‘The Big Read-“Fahrenheit 451” Mesquite Read-a-thon’이라는 제목의 책 낭독회, 10월 28일 Texas 주 Mesquite에서 지역의 Mesquite Community 극단과 11월 Connecticut 주 Waterbury의 Silas Bronson Library 주관 TBR에서 Thomaston High School 학생들의 『화씨 451』 연극 공연 등 프로그램도 책 자체를 주제로 하여 포함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화씨 451』 다음으로 자주 주제로 언급된 것은 소방관, 소방 안전, 소방서 등을 포함하는 ‘소방’으로 25개 프로그램(9.3%), ‘책’을 주제로 24개 프로그램(8.9%), 작가인 ‘Bradbury’를 주제로 23개 프로그램(8.5%)이 진행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금서’를 주제로 14개 프로그램(5.2%), ‘Science Fiction(SF)’을 주제로 11개 프로그램(4.1%), ‘검열’ 주제로 7개 프로그램(2.6%), ‘불’, ‘표현의 자유’, ‘가상(Virtual)’을 주제로 각각 2개 프로그램(0.7%)이 진행되었다. 그밖에 기타 주제어로 11개 프로그램(4.1%)이 진행되었다.

‘소방’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10월 18일 Indiana 주 New Castle의 New Castle-Henry County Public Library에서 진행된 ‘Fire Safety Day’에서는 소방관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가정에서의 소방안전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Illinois 주 Springfield의 Rochester Public Library에서 ‘Topics to Chew On’이라는 프로그램을 진

행하며 소방관 캡틴이 노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Remembering When”이라는 화재 예방 프로그램을 강연하였다. 그밖에 여러 지역사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스토리타임, 소방서 방문, 소방차 등 장비 전시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금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중에는 North Carolina 주 Winston-Salem에서 ‘Great Movies from Banned Books’ 시리즈로서 Vladimir Nabokov의 *Lolita*, Kurt Vonnegut의 *Slaughterhouse Five* 등 유명한 금서를 영화화한 작품들을 상영하고 토론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Banned Books Mock Bon-Fire’에서 현대사에서 금지된 책들을 모의 모닥불로 태우는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다. ‘검열’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으로는 역시 Winston-Salem에서 2008년 10월 1일 ‘Censorship: The Dirty Word on Free Speech’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책이든 검열하면 그 책이 즉각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상 등 작가와 검열에 대한 토론을 지역의 작가 그룹 Winston-Salem Writers와 Press 53이 주관하여 진행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같은 날 Illinois 주 Springfield에서는 Illinois State Library 주관으로 청소년 대상 ‘Virtual Wars: Censorship Online: Teen Open Forum’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넷 검열이 오늘날의 분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의 규제와 금지 사이트 등을 주제로 토론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중에는 Colorado 주 Greeley의 High Plains Library District에서 ‘For the Love of Books’라는 콘테스트가 열렸다. “만약 단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지키겠느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연령별로 추천하여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다. 또 Indiana 주 New Castle-Henry County Public Library도 거의 같은 주제로 10월 한 달 동안 청소년 대상 “Save a Book” Blog Essay Contest’를 열었다. 『화씨 451』을 읽고, “만약에 책이란 것이 망각 속으로 사라지기 전 단 한 권만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왜 구하겠느냐”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공모하였다. 그밖에 Oklahoma 주 Midwest City에서는 지역의 예술 전공 고등학생들이 ‘Altered Books Exhibit’을 열었고, South Dakota 주 Mitchell에서는 Dakota Wesleyan University 주관 ‘Presentation: The Value of a Book’이라는 제목의 박물관 특별 프로그램에서 초대작가와 박물관 관장이 가치 있는 책을 알아보는 방법, 자기 책을 잘 간수하는 방법 등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표 3>은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나타낸다. 전체 270개 프로그램들 중 특별히 청소년 혹은 중고생 등으로 표시한 프로그램은 23개(8.5%), 유아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한 프로그램은 14개(5.2%)로 나타났다. 특별히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없었으나 노인독서클럽의 독서토론 등을 별도로 분류하면 3개(1.1%)가 해당되었다. New Jersey 주 Salem의 ‘YMCA Senior Potluck Luncheon’ 독서토론 같은 것이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머지 230개 프로그램(85.2%)은 대상자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임을 나타냈다. 이처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것은 특별히 『화씨 451』이라는 책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한 책’ 독서운동 및 그 모형을 채

택한 TBR이 처음부터 고등학생 이상 어른들을 위한 독서운동을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긴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소방관, 소방 안전 등에 관한 것이거나, 소방관이 읽어주는 스토리타임 등이다. 취학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검열이나 금서, 디스토피아 같은 『화씨 451』의 주제들을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의 일면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Oklahoma 주 Choctaw에서는 Choctaw Library 주관으로 ‘Firefighter Visit’를 진행하며, 지역 소방관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소방차도 구경시켜 주고 소방 안전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New Jersey 주 Salem에서는 반대로 ‘Fire Service Open House & Firefighter Appreciation Day’로 어린이들이 소방서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청소년 프로그램 중 Winston-Salem의 ‘Outlaw Readers Book Club for Homeschoolers’는 홈스쿨링 하는 청소년 독서토론으로서 Bradbury뿐만 아니라, Carolyn Mackler, Lois Lowry 등 이른바 “문학적 무법자들(literary outlaws)”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였다. 학교리는 법적 제도권 바깥에 있는 홈스쿨링 청소년의 독서클럽을 ‘Outlaw Readers’라고 명명하고, 주제 또한 이렇게 잡은 것은 재미있는 발상이다. Florida 주 Clewiston의 Hendry County Library Cooperative 주관 TBR에서도 홈스쿨링 청소년을 위해 ‘Homeschool Spelling Bee’를 열고 『화씨 451』의 일부를 읽고 철자법 대회도 진행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분명 『화씨 451』이라는 책에서 시작 혹은 ‘발화’되었지만 보다

다양하면서도 심화된 주제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대상 연령에 맞추어 주제의 강조점이 변화되고 창의적으로 변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6.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53개 ‘한 책’ 프로젝트와 136개 TBR 지역사회에서 선정되어, 두 번째로 많이 선정된 『화씨 451』의 주제와 특성을 검토하고, 이 책의 선정 이유와 배경, 이 책을 중심으로 한 활동과 프로그램 등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2002년 『화씨 451』을 처음 선정한 ‘One Book, One L.A.’와 ‘Read Together Palm Beach County’ 등의 프로그램, TBR 2008/09에 참여한 42개 지역사회의 270개 프로그램, 및 TBR 2014/15에 참여한 6개 지역사회의 240여 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TBR 2008/09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는 당연히 독서토론의 비중이 가장 컸고(97개, 35.9%), 『화씨 451』 자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가장 컸음(149개, 55.2%)을 보여주었다. 토론과 프로그램에서는 검열, 금서, 표현의 자유와 같은 주제들이 강조되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 주인공의 직업인 소방관, 그리고 소방관이 원래 하는 일, 즉 불을 끄는 일을 주제로 삼아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눈에 띄었다.

이전에 『앵무새 죽이기』를 읽은 ‘한 책’ 독서운동에서 관찰한 것처럼(윤정옥 2014b), 『화씨 451』을 읽으면서 서로 다른 ‘한 책’ 프로젝트들이나 TBR 지역사회들이 주제의 상이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고, 책 한 권을 매개로 하여, 책 자체 및 책에서 다루었거나 파생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과 프로그램이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주제의 무게 때문에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 연구는 TBR 2008/09와 TBR 2014/15라는 특정 시기의 프로그램들을 주로 검토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협력의 중요성이다. 『화씨 451』의 자칫 무겁거나 단조로울 수 있는 주제도 카페, 맥주 주점, 자전거 가게, 달리기 동호회 등 직접 책과 연관이 없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협력한 지역사회 구성원들 덕분에 훨씬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었다.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리고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감으로써 공감하고 협력하는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한 책’ 독서운동이 목표한 바이며, 『화씨 451』 또한 적절한 실마리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씨 451』이 가진 ‘한 권의 책’으로서의 가치는 또한 ‘역설’이라는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Bradbury는 후기에서 UCLA 도서관 지하에서 30분에 10센트씩 넣고 타자기를 빌려 『화씨 451』을 쓰던 당시를 이야기하였다. 틈이 날 때마다 서가들 사이를 거닐며 책들을 꺼내 여기 저기 페이지를 펼쳐보며 “도서관의 핵심인 그 모든 훌륭한 작품들에 흠뻑 젖으면서... 미래에 책을 불태우는 것에 관한 소설을 쓰던” 경험을 말했다(Bradbury 1953). 그토록 책을 사랑하는 작가가 책을 불태우는 이야기를 썼던 것,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이 책을 불태우는 이야기를 그토록 열심히 읽는다는 것은 의미

있는 역설이라 하겠다.

『화씨 451』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더 심각하게 혹은 절실하게 읽힐 수 있다. 왜냐면 Bradbury가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의 ‘침공’에 따른 지적 탐구와 독서의 쇠퇴를 염려했던 1950년대에서 60여 년이 흐른 미래, 그것이 지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책을 불태우지는 않아도 인터넷이며 스마트폰 같은 온갖 기기와 도구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지금, 사라져가는 책의 존재를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지금, 『화씨 451』의 메시지는 더욱 생생해지고, ‘한 책’ 독서운동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진다.

참 고 문 헌

- [1] 우윤희, 김종성. 2014. 우리나라 ‘한 도시 한 책’ 운동 선정도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309-336.
- [2] 윤정옥. 2013.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서울: 조은글터.
- [3] 윤정옥. 2014a.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선정 책의 현황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171-194.
- [4] 윤정옥. 2014b. ‘한 권의 책’으로서 『앵무새 죽이기』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115-133.
- [5] 조찬식. 2013.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201-221.
- [6]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3. *One Book, One Community: Planning Your Community-wide Rea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nline] [cited 2007. 1. 18.] <<http://www.ala.org/ala/orc/onebookguide.pdf>>
- [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4a. *Banned & Challenged Classic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nline] [cited 2014. 5. 8.] <<http://www.ala.org/bbooks/frequentlychallengedbooks/classics>>
- [8]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4b. *Banned and/or Challenged Books from the Radcliffe Publishing Course Top 100 Novels of the 20th Century in Banned Books: Challenging our Freedom to Read*. Doyle, R. P. 2010.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nline] [cited 2014. 5. 8.] <<http://www.ala.org/bbooks/frequentlychallengedbooks/classics/reasons>>
- [9]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4c. *Top 100 Banned/Challenged Books: 2000-2009*.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nline] [cited 2014. 11. 20.] <<http://www.ala.org/bbooks/top-100-bannedchallenged-books-2000-2009>>

- [10]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4d. *100 most frequently challenged books: 1990-1999*.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nline] [cited 2014. 11. 20.]
<<http://www.ala.org/bbooks/100-most-frequently-challenged-books-1990-1999>>
- [1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5. *Banned Books Week: Celebrating the Freedom to Rea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nline] [cited 2015. 5. 6.]
<<http://www.ala.org/bbooks/bannedbooksweek>>
- [12] Bradbury, R. 1953. *Fahrenheit 451*. The 50th Anniversary ed. New York: Ballantine Books.
- [13] Business Wire. 2003. *Mayor Hahn Reads Aloud with Hollenbeck Middle School Students, Setting New Guinness World Record*. New York, US: Business Wire. [online] [cited 2015. 1. 4.]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030402005693/en/Mayor-Hahn-Reads-Aloud-Hollenbeck-Middle-School#.VKkYc7dxIOQ>>
- [14] “One Book, One Community: One Great Idea.” 2009. *Library Journal*. September 1. [online] [cited 2015. 1. 4.]
<<http://lj.libraryjournal.com/2009/09/public-services/one-book-one-community-one-great-idea/>>
- [15] “Big Read, Big ROI.” 2008. *Library Journal*. November 15. [online] [cited 2015. 5. 22.]
<<http://lj.libraryjournal.com/2008/11/funding/big-read-big-roi/>>
- [16] ““And Then We Went to the Brewery”: Reading as a Social Activity in a Digital Era.” 2014. *World Literature Today*, May-August. [online] [cited 2014. 5. 21.]
<<http://www.worldliteraturetoday.org/2014/may-august/and-then-we-went-brewery-reading-social-activity-digital-era#.VV71ObeJjeJ>>
- [17] Goodreads. *Best Books of the 20th Century*. San Francisco: Goodreads. [online] [cited 2014. 5. 21.]
<http://www.goodreads.com/list/show/6.Best_Books_of_the_20th_Century>
- [18] HarperCollins Publishers. 2014. *The Official Website on Ray Bradbury*.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online] [cited 2015. 5. 10.] <<http://www.raybradbury.com/>>
- [19] “‘Fahrenheit 451,’ Read by Tim Robbins.” 2014. *New York Times*. November 21. [online] [cited 2015. 1. 13.]
<<http://www.nytimes.com/2014/11/23/books/review/fahrenheit-451-read-by-tim-robbins.html>>
- [20] Kalamazoo Public Library. 2003a. *Reading Together. Fahrenheit 451: Discussion Guide*. Kalamazoo, US: Kalamazoo Public Library. [online] [cited 2014. 11. 20.]
<http://www.kpl.gov/reading-together/2003/discussion_guide.html>

- [21] Kalamazoo Public Library. 2003b. *Reading Together. Fahrenheit 451: What if the Entire Community Read the Same Book at the Same Time?* Kalamazoo, US: Kalamazoo Public Library. [online] [cited 2015. 3. 10.]
<<http://www.kpl.gov/reading-together/2003/Default.htm>>
- [22] Kalamazoo Public Library. 2003c. *Reading Together. Fahrenheit 451: Headline Events.* Kalamazoo, US: Kalamazoo Public Library. [online] [cited 2015. 3. 10.]
<http://www.kpl.gov/reading-together/2003/headline_events.html>
- [23] Library of Congress. 2014. *Books That Shaped America.* Washington DC, US: Library of Congress. [online] [cited 2014. 9. 18.] <<http://read.gov/btsa.html>>
- [24] Library of Congress. 2013a.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Washington DC, US: Library of Congress. [online] [cited 2013. 6. 30.]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
- [25] Library of Congress. 2013b.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Selected List by Author.* Washington DC, US: Library of Congress. [online] [cited 2013. 6. 30.]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authorlist.php>>
- [26] LibraryThing. 2015. *Fahrenheit 451.* New York: Ballantine Books. [online] [cited 2015. 1. 13.] <<https://www.librarything.com/work/4248>>
- [27] "Read Together Palm Beach County." 2014. *Literacy Coalition of Palm Beach County.* [online] [cited 2015. 5. 13.]
<<http://www.literacypbc.org/Programs/Read-Together-Palm-Beach-County/>>
- [28]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04. *Reading At Risk: A Survey of Literary Reading in America.* Washington, D. C: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online] [cited 2015. 5. 21.] <<http://arts.gov/sites/default/files/ReadingAtRisk.pdf>>
- [29]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07. *To Read or Not to Read: A Question of National Consequence.* Washington, D. C: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online] [cited 2015. 5. 21.] <<http://arts.gov/sites/default/files/ToRead.pdf>>
- [30]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09. *Reading on the Rise: A New Chapter in American Literacy.* Washington, D. C: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online] [cited 2015. 5. 21.] <<http://arts.gov/sites/default/files/ReadingonRise.pdf>>
- [31]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3. *How a Nation Engages with Art: Highlights from the 2012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 Washington, D. C: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online] [cited 2015. 5. 21.]
<<http://arts.gov/sites/default/files/highlights-from-2012-sppa-revised-jan2015.pdf>>

- [32] One Book, One Community. 2010. About the Program. [n.d.]: One Book, One Community. [online] [cited 2014. 11. 19.]
〈<http://onebookeastlansing.com/Home/AbouttheProgram.aspx>〉
- [33] Palm Beach County Library. 2014. *2014 Read Together, Palm Beach County: One Book, One Community: The Five Books*. Florida: Palm Beach County Library. [online] [cited 2015. 5. 13.]
〈<http://www.pbclibrary.org/2014-Read-Together-Palm-Beach-County#.VVL2cLeJjeI>〉
- [34] Read Together Palm Beach County. *Read Together Palm Beach County*. [n.d.]: One Book, One Community. [online] [cited 2015. 3. 10.]
〈<http://www.palmbeachschools.org/ec/documents/AmbassadorsheetRT2014.pdf>〉
- [35] Sloan, K., Honeyford, M. and Bass, K. 2008. *A Book Club for a Nation, Built by Chapter*. Minneapolis: The Big Read. [online] [cited 2015. 3. 10.]
〈<http://files.eric.ed.gov/fulltext/ED511710.pdf>〉
- [36] The Big Read. 2009. *Our Books: Theme*. Minneapolis: The Big Read. [online] [cited 2009. 4. 20.] 〈<http://www.neabigread.org/books.php>〉
- [37] The Big Read. 2015a. *Fahrenheit 451 by Ray Bradbury: Description*. Minneapolis: The Big Read. [online] [cited 2015. 1. 7.] 〈<http://www.neabigread.org/books/fahrenheit451/>〉
- [38] The Big Read. 2015b. *Fahrenheit 451 by Ray Bradbury: Bradbury and His Other Works*. Minneapolis: The Big Read. [online] [cited 2015. 4. 22.]
〈<http://neabigread.org/books/fahrenheit451/readers-guide/other-works-adaptations/>〉
- [39] The Big Read. 2015c. *Fahrenheit 451: Schedule/Lesson Plans*. Minneapolis: The Big Read. [online] [cited 2015. 3. 11.]
〈http://neabigread.org/teachers_guides/lesson_plans/fahrenheit451/Bradbury_TG2014.pdf〉
- [40] The Big Read. 2015d. *Fahrenheit 451: Reader's Guide. Introduction to the Book*. Minneapolis: The Big Read. [online] [cited 2015. 8. 9.]
〈<http://neabigread.org/books/fahrenheit451/readers-guide/>〉
- [41] WorldCat. 2015. "Genres: Science Fiction." Dublin: 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 [online] [cited 2015. 3. 25.] 〈<http://www.worldcat.org/genres/science-fiction.htm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Woo, Yun-Hee and Kim, Jong Sung. 2014. "An Analysis of Books Selected for 'One Book,

- One Cit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309-336.
- [2] Yoon, Cheong-Ok. 2013. *'One Book, One Community' Reading Promotion Campaign in the U.S.A.* Seoul: Joun Geultoe.
- [3] Yoon, Cheong-Ok. 2014a. "An Analytical Study on the Books Selected in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s in the U.S.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171-194.
- [4] Yoon, Cheong-Ok. 2014b. "A Study on *To Kill a Mockingbird* as 'One Bo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115-133.
- [5] Cho, Chan-sik. 2013. "A Study on the Public Reading Campaign: The Case of 'One Book, SeongBuk' Campaign in Seongbuk-Gu,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201-221.